

- 주요 뉴스: 미국 주요 국채금리, 잭슨 홀 미팅 경제감 등으로 상승 지속 이후 방향은 불투명
 - 미국 7월 내구재 수주, 전월비 보합. 기업설비 투자는 증가세 둔화
 - 독일 연구기관 DIW, 러-우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'25년까지 지속 전망
 - 중국 외환당국, 일부 은행의 공격적인 위안화 매도 행위에 경고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잭슨 홀 미팅 앞두고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전망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3%], 달러화 약보합[-0.0%], 금리 상승[+6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방어주 중심으로 매수 유입되며 0.2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 등이 반영
유로화가는 약보합, 엔화는 0.3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 전망 등으로 8주래 최고치
독일은 ECB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5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40.6원, -1.55원) 0.1% 하락, 한국 CDS 하락

		8/24일	8/23일	전일대비			8/24일	8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40.8	4,128.7	0.29%	국채 금리 10y	미국	3.10%	3.05%	6bp
	유럽	432.05	431.35	0.16%		독일	1.37%	1.32%	5bp
	중국	3,215.2	3,276.2	-1.86%	CDS 5y	한국	33bp	35bp	-2bp
	일본	28,313	28,453	-0.49%		중국	70bp	73bp	-3bp
	한국	2,447.5	2,435.3	0.50%	위험 지표	EMBI+	-	424	-
달러지수	108.59	108.62	-0.03%	VIX		22.82	24.11	-5.35%	
유로화	0.9967	0.9970	-0.03%	WTI유		94.89	93.74	1.23%	
환율	엔화	137.12	136.77	-0.26%	원자재	구리	364.4	369.6	-1.39%
	위안화	6.8595	6.8350	-0.36%		금	1,751.2	1,748.2	0.17%
	원화	1,342.1	1,345.5	0.25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**미국 주요 국채금리, 잭슨 홀 미팅 경계감 등으로 상승 지속. 이후 방향은 불투명**
 - 8/24일 미국 2년물 및 10년물 국채금리는 모두 올랐고(각각 3.39% +9.1bp, 3.10% +5.8bp),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8월 초 이후 53bp 상승. 이는 8/25일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 등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을 강조할 수 있다는 예상 등이 반영된 결과
 - 미니아폴리스 연은의 카슈카리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높으며, 이에 통화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다고 발언. 특히 인플레이션은 수준은 높고 실업률은 낮기에, 이들 간 균형을 새롭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
 - 다만 일부에서는 국채가격 등 금융시장 전반에 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 전망이 이미 상당히 반영되어 있어, 잭슨 홀 미팅 이후에도 주요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
 - Ameriprise Financial의 Anthony Saglimbene는 최근 국채시장이 극단적인 매파적 시각과 극단적인 비둘기파적 시각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는데, 잭슨 홀 미팅 이후에는 이들 사이의 중간 위치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**미국 7월 내구재 수주, 전월비 보합. 기업설비 투자는 증가세 둔화**
 - 해당 수주는 2735억달러로 전월과 동일한 규모를 기록하여, 6월(2.2%) 대비 낮은 수준. 비국방 기업설비 투자와 유사한 근원 내구재 수주의 전월비 증가율은 0.4%로 6월(0.9%) 대비 하락
 - 전문가들은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소비지출 여력이 약화된 여파가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. 다만 기업설비 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, 수요 자체는 늘고 있다고 평가
- **미국 7월 잠정주택 판매, 전월비 소폭 감소. 일부에서는 저점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**
 - 해당 판매는 전월비 1% 줄어 6월(-8.9%) 대비 감소세 둔화. 부동산중개인협회의 Lawrence Yun은 잠정주택 판매의 감소세가 완만해지고 있으며, 이를 고려 시 점차 저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

- **핀란드 중앙은행 총재, 디지털 유로화 출범은 국경 간 결제 촉진 등 여러 장점을 내포**
 - 렌 이사는 이 외에도 디지털 유로화 출범이 개인들에게 은행과의 거래 혹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의 용이성을 향상시킨다고 언급. 한편 '23년 10월에 디지털 유로화 사용 관련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
- **독일 연구기관 DIW, 라우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'25년까지 지속 전망**
 - 독일경제연구소(DIW)의 Marcel Fratzscher은 라우 전쟁 영향은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 영향에서 자유롭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'25년에야 종료될 것으로 기대. 이번 전쟁은 금년 독일 성장률이 3%p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
- **이탈리아 총리, 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촉구**
 - Дра기 총리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이 공급불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. 하지만, 최근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, 이러한 반대의 근거가 약해지고 있다고 부연
- **선물시장, ECB와 영란은행의 큰 폭 금리인상을 예상**
 - 단기 자금시장의 트레이더들은 ECB가 10월까지 1.0%p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. 한편 영란은행의 경우 금년 말까지 정책금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3.5%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. 이는 10일 전의 3.0%에서 상승. 이러한 전망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축소 관련 우려 등에 기인
- **중국 외환당국, 일부 은행의 공격적인 위안화 매도 행위에 경고**
 -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, 인민은행에서 일부 은행에 유선 연락을 통해 공격적인 위안화 매도를 자제하도록 경고. 이와 관련 국가외환관리국은 8월의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가 많은 수준은 아니며, 수급 역시 안정적이라고 반박

주요 경제지표

- **주요 경제 이벤트(8/25 현지시각 기준)**
 -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, 잭슨 홀 미팅
 - 미국 8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미국 2/4분기 성장률(수정치)
 - 독일 2/4분기 성장률(수정치), 8월 IFO 경기기대지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유로화 가치, ECB의 큰 폭 금리인상 시에도 유의미한 상승 전환은 기대난 - 블룸버그**
(Even a Jumbo ECB Rate Hike Won't Stop the Euro From Diving)
 -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20년래 최저 수준. 이는 통화정책보다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차질 등에 따른 고물가 및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 등에 기인. 투자자들은 고물가를 반영하여 ECB가 10월까지 1.0%p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. 유로화 약세의 원인을 고려한다면 금리인상에 따른 통화가치 상승효과는 제한적
 - JPMorgan Private Bank의 Sam Zief 역시 최근 외환시장은 금리수준보다 각국의 경제 여건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,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긍정적인 경제전망이 요구된다고 주장
- **글로벌 유가의 하락, 단기 현상에 그칠 소지 - Financial Times**
(Turn in global oil markets may be shortlived)
 -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를 낙관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. 이는 공급 증가 때문이 아니라 주요국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이 원인이기 때문. 이외에 중국의 수요도 크지 않은 상황이 반영
 - 공급측면에서는 원유시장의 변수인 OPEC의 생산능력이 축소되고 있고,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미국에서도 화석연료 투자는 소극적. 향후 제한적인 원유공급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최근 유가 방향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경계할 필요
- **미국 연준의 경기연착륙 여부,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관건 - Financial Times**
(Can the Fed tame inflation without causing a recession?)
- **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대응, 이전에 비해 성과는 양호한 편 - 블룸버그**
(Jerome Powell Is Fighting Inflation — and Winning)
- **최근 미국 증시의 자금 유입, 주가 저점 통과 기대 등에 기인 - WSJ**
(Investors Return to Stock Funds, Starting to Reverse Recent Exodu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